

해결책은 디자인 코팅 방식이다.

요즘 IAC(Infrastruture As Code) 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십 수백대의 클라우드에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전문 전산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을 프로그램(Code)로 자동화 함으로서 매번 반복되는 복잡한 작업을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단순화 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기법을 편집에도 도입하자은 것이다. 디자인의 부분을 프로그램(Code)로 구현하고 원하는 부분을 Copy & Paste 로 일반인도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편집물을 객체지향(Object Oriented Programmng) 방식으로 구현한다.

우리가 익숙한 전자출판 프로그램에는 툴박스라는 기능이 제공 된다. 이것을 사용해서 박스 선, 동그라미, 텍스트박스 등을 생성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좀더 복잡한 모양들을 만들고 이들을 조합 해서 하나의 페이지를 편집한다. 그리고 애써 만들어 놓은 부분을 다시 재활용 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라는 곳에 저장 했다가 다시 재활용 한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많아 보유한 디자인너는 고수로 인정 받는다. 축척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반복되는 편집물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물 별로 디자인 고수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서 자동편집용으로 하로용하다.

이러한 툴들을 좀더 세분화 해서 바탕텍스트박스, 제목박스, 그림조합, 표, 박스기사, 사진설명 등 을 각각의 객체(Class)로

내용물에 따라서 각각의 주어진 부분을 편집물을 생성한다.
그리고 페이지라는 객체가 이들을 각각의 위치에 배치 한다.
다시 도큐먼트 라는 객체가 이들 페이지를 합성해서 하나의
문서로(Chapter)로 생성한다.